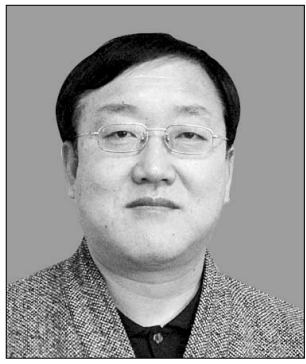


3월 2주 수행일기 <上>

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한 것이 내 인생의 지표를 크게 바꿔 놓는 계기가 됐다. 지금도, 그 때의 인연때문에 불교 활동(대불련부산동문회 상임부회장)을 계속하고 있다. 불교 입문 시절 필자에게 큰 가르침을 내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삼목 스님(임직이다).



주영배
보안기획 대표

삼목 스님을 처음 뵈는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다. 부산대 불교학생회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불서를 구하려 여러 사람을 돌아다닐 때, 부산 당감동 선암사에 노스님이 한분 계시다는 말을 듣고, 2학년 불교학생회장과 다른 후배와 함께 스님을 찾아보았다.

당시, 스님은 선암사 칠성각에 주석하셨는데 거사법회에서 한두 번 법문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친견하기는 처음이었다. 삼배를 드리려 절을 하기가 무섭게 일 배만 하신다.

다. 스님들은 항상 자비스런 분이라고 여겼기에,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스님이 옆에 있는 불교회장더러 "박군, 자네는 열길 넘는 우물 속에 떨어지면 빠져나올 수 있겠나?" 물으시자 잠시 생각하던 박군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스님."

"에이, 저놈도 같이 끄집어내라." 호통을 치시는데 같이 간

대불련 활동 인생 지표 크게 바꿔 자성 깨쳐야 한다는 스님 말씀에...

"어디서 왔소?"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에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소?"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책을 좀 구하러 왔습니다."

묵묵히 우리를 보시더니 나를 보고 "자네 성(姓)이 뭐가?"
"예, 주(朱)가입니다."

"주군, 사람에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지?"
"예."

"그럼 선한 마음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예, 악한 마음이 남습니다."

"그 악한 마음마저 빼면 뭐가 남지?"
"그때 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렇게 인자해 보이던 스님께서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크게 호통을 치셨다."

"이놈, 그것도 대답이다. 저놈을 당장이 자러서 끄집어내라." 난 그때까지 스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을 본 적이 없

모두가 놀라서 간이 퐁알만 해졌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도(道)란 책을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빼고 나면 바로 거기에 잠깐 자기의 모습(自性)이 나타나는 법이야. 또, 열길 넘는 우물 속에 떨어지면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면 '스님, 열길 넘는 우물을 한번 펼쳐나 보십시오' 이해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가지고 되겠느냐?" 하시면서 책만 읽는 것을 경계하셨다.

화두(話頭)를 들어 자성을 깨쳐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실사 책을 읽더라도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특히 불교에 대해 설명한 책, 경전을 해석한 책이라도 개인의 사건이 들어간 책은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다. 굳이 책을 보겠다는 이

예전 <육조단경> <선문염송> <전등록> 과 이화회씨가 지은 <조선불교통사>를 권하시는 정도였다. (계속)

농사, '마음의 밭' 가꾸는 일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봉화관음사 '농선(農禪)'

'농사짓는 마음이 부처님마음일세(農心佛心)!'
과종할 씨앗에 부처님의 대자비를 심고, 수확한 농산물에 우주의 감사함을 담아내는 도량. 밭갈고 김 때면서 풀 한 포기마다 불보살의 명호를 새기며, 농산물을 먹는 이웃에 부처님의 공덕을 전하는 절. 경북 봉화군 상운면 관음사는 농토가 바로 '큰 부처 밭이요(大佛田)이요 작은 부처 논(小佛畝)'으로 알아 일터를 참선밭 삼아 수행하는 농선(農禪)도량이었다.

10일 오전 관음사 법보전, 우렁찬 독경소리로 늦겨울 추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삼귀의에 이어 농선도량 수행문 낭독, <108예불대참회문> 독경 등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57일째 <불설아미타경> 기도와 계미년 정초 7일 산림기도 회향법회로 진행됐다.

100여명의 신도들은 참회에 이어 <불설아미타경> 57일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글로 독경한 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발원하는 '기도 염송문'을 낭독했다. 일상 생활 또는 수행중에 생겨나는 '결집들'을 '디딤돌'로 바꾸는 가르침인 <보왕삼매론> 독송에 이어 농선수행자의 서원을 아로새겼다.

"첫째, 연기법을 우리 세계관을 삼는다. 둘째, 부처님과 보살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는다. 셋째, 무아 무소유 무아집을 수행의 지표로 삼는다."

관음사 신도들이 보는 법회교재인 <농선도량 100일기도 수행법>에는 한글 경전과 함께 수행 일지를 작성하는 빈 칸에 마음공부의 진전 상태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있다. 한공의사에 이어 진행된 순서는 산림기도 회향법회. 주로 정초에 하는 산림기도(山林祈禱)란 아상(我相)으로 대표되는 사상(四相)이라는 산을 허물고, 공덕을 수풀처럼 많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100일 기도중 새벽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았다는 김주익 불자의 집전으로 열린 회향법회에서

이승훈(39·봉화읍) 봉화불교법우회 회장은 "정초 기도의 찬탄과 공양, 발원의 힘으로 한 해 공부를 슬기롭게 지어가지"고 말했다. 최고령자인 유서형(80·봉화읍) 할아버지는 "1949년 동명 큰스님(1985년 입재)이 이 곳에 농선도량을 연 후 하루 같이 농사 일과 열불, 독경을 곁에 온 신도들에게 감사한다"며 주지법사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정진하고자 당부했다.

이어 농선 법사는 "6년간 정토삼부경무량수

병행(農禪並行)을 강조한다. 하루 놀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정규(百丈淸規)를 실천 당나라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 선사의 가르침을 생생히 실천하고 있는 곳이다. 일상의 노동에서도 방심해서는 안되겠지만 '마음의 밭(心田)'을 가는 일에 있어서는 잠시 방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마음을 풀어놓으면 잘 나간에도 수많은 업을 짓기에 일상속에서 매순간 일과 하나가 되는 평상심(平常心)으로 깨달을

논두렁 법당삼고 호미 죽비삼아 일·수행 하나되는 농선병행 실천



10일 오전 봉화 관음사 법보전에서 열린 정초 7일 산림기도 회향법회에서 이승훈 봉화불교법우회장(서)은 사람과 신도들이 재배를 다짐하고 있다.

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주제로 100일 기도를 계속하며 현재의 삶에서 극락정토를 만드는 공부를 잘 해왔다"며, 일하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도록 매순간 발심하자고 설법했다.

관음사의 농선 수행은 농민들이 일하는 가운데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농한기나 휴식시간에는 경전을 독송하거나 사경하고 절하고 참선하는 등 농사 일과 수행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농선

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96년부터 본격화된 관음사의 농선수행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민과 함께 하는 형태로 전개돼 농촌지역 포교에 가장 적합한 방편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도시의 직장인이나 청년들이 농사와 수행을 함께 체험하는 이색 사찰수련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054)672-7940

봉화=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관음사 주지 농선 법사

농번기에 율력하며 수행 농한기엔 안거기도

"매일 경전을 한 단락씩 읽고 사경하고 108배와 참선을 하며, 일 가운데 열불하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이 농선수행입니다."

대학졸업 후 계속 농사를 짓고 수행에 전념해 온 관음사 주지 농선(39) 법사는 "7년째를 맞은 정토삼부경 동안거 백일기도는 농한기의 농촌불자들이 신심을 다지는 가장 좋은 기회여서 동참해 본 불자들이 다음해에는 반드시 다른 도반들을 데리고 올 정도"라고 자랑한다. 경전 독송과 사경을 위해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크다는 것이다.

농선 법사는 농사철이면 인근 부락을 돌아다니며 밭갈이와 모내기 율력에 나서고 동양란과 적상추 등 직접 시설작물을 재배하기도 한다. 서로 품앗이를 하며 정답게 농사를 짓는 동안 논두렁 밭두렁을 법당삼고 호미를 죽비삼아 설법한다. 농한기에 실시하는 동안거 백일기도는 경전공부와 사경, 참회, 참선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짜여져 집중적으로 보리심을 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선 법사는 "농선수행은 도시에서는 공선(工禪)·상선(商禪)수행으로 바뀌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며 "일 속에서 열불하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 살아있는 공부"라고 강조했다.

수행 캘린더

■간화선과 위빠사나 논강=선우 논강은 2월 25일 오후 6-9시 남원실상사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주제로 제7회 선우논강을 연다. 제주 남국선원장 혜국 스님이 기조강연을, 초기불전연구원 각목 스님이 발제를, 정화 스님과 인경 스님(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이 대표 토

론한다. (02)3676-4060

■14기 근불교학교=북대빠라 스님은 3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위빠사나, 참선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제 14기 근불교학교를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서울 지혜선원 (011-9557-8730)=화요일 오후 반 2-4시, 저녁반 7시30분-9시 30분, 보라매공원내 보라매법당서 △부산 다보선원(055-331-6118)=금요일 오전 10시30분

~12시30분, 오후 7시30분~9시 30분, 토요일 오후 4-6시 △대구 지혜선원(053-255-0442)=목요일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오후 7시30분~9시30분 △대전 지혜선원(055-331-6118)=수요일 오후 2-4시, 오후 7시30분~9시 30분.

■법륜사 '마음 비유기'=경기 시흥 법륜사는 '마음 비유기'를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정기법회를 연다. 매달 1·3·5주 일

요일은 장년층 위주의 진각회 법회이며, 2·4주 일요일은 청년회 법회다. (031)317-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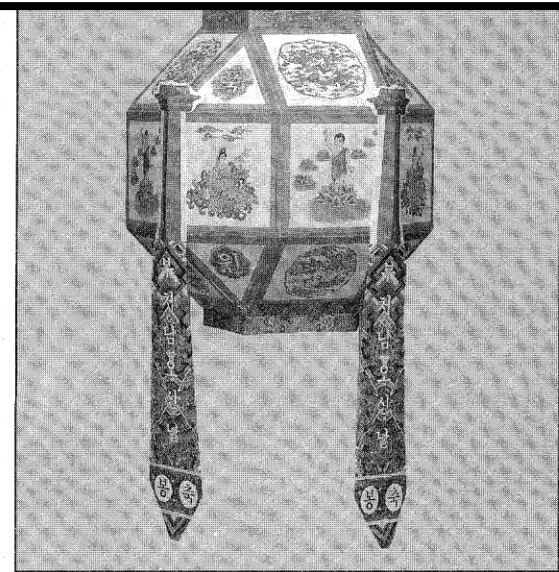
■통도사수련동문회 수련=통도사수련회 총동문회(cafedaum.net/tongdotemple)는 2월 22-2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제2차 수련회를 연다. (051)240-4208

■위빠사나 초보자 수행=서울 동산불교청년회(cafedaum.net/yinyen)는 2월 20·27일 오후 7시 30분~9시 동산법당에서 보리수

선원 정평 법사를 초청, 위빠사나 초보자 수행을 실시한다. (011)383-1206

■수행불교회 3월 법회=서울대수행불교회는 3월 16일(일) 오전 10시 서울 정정선원에서 법기도 지도법사 강진 법사의 지도로 3월 정기법회를 연다. (02)880-8627

■3333배 정진=양평 범양정사는 2월 22일 복을 짓고 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3333배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031)771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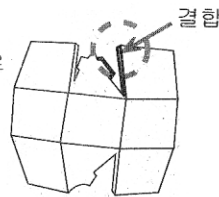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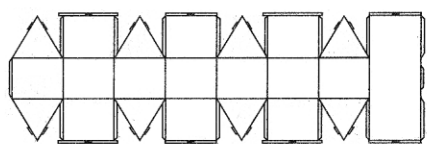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화, 팔관화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초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동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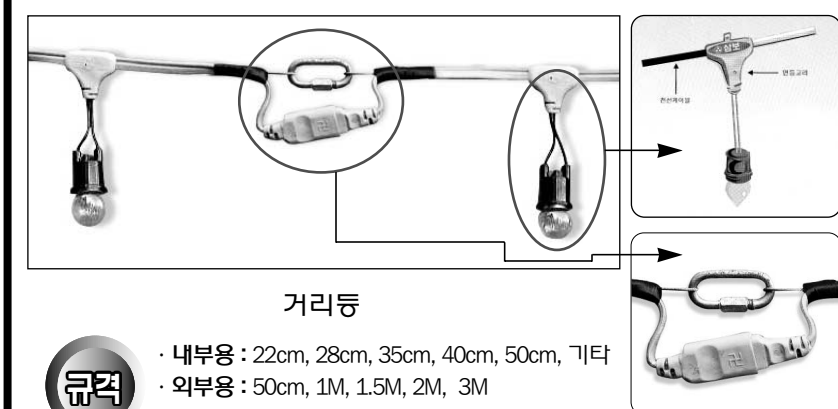
전화: (02)467-1513 핸드폰: (016)552-9360

삼보전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 주문시 견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 내구성** 특수재료를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에 드리겠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블

- ◆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 ◆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 ◆ 일체성 - 접촉 불량률이 없습니다.

외부용 [연등고리]

- ◆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등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대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